

## When

**바로 오늘, 7월 15일**, 페이스북에서 세플러코리아를 만날 수 있어요.

## How

페이스북에서 **Schaeffler**를 검색해보세요.

세플러코리아와 자동 연결됩니다.

또, 아래의 주소와 QR code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요.

<https://www.facebook.com/SchaefflerKorea>

## What

세플러 글로벌과 우리의 이웃 아시아 퍼시픽의 소식

그리고 각 사업장과 각 부서의 소식을 알 수 있어요.

## Like & Share

**Welcome to Schaeffler Korea Facebook!**

여러분의 like와 share를 기다립니다.

세플러코리아 그리고 세플러 글로벌과 나누고 싶은 소식을

Communication & Branding에 제보해 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Hurry up

세플러코리아 페이스북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해요.

세플러코리아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후,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가장 따뜻한 10분께 치즈님을 보내드려요.**

(이벤트 기간 : 7월 15일 ~ 26일)



# Schaeffler Korea MEET

# facebook



지금 QR코드를 찍어 세플러코리아를 만나보세요.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9 SUMMER Vol.57



SCHAEFFLER



세플러원을 모바일로도 만나보세요.

## CONTENTS

세플러원은 세플러인의 꿈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입니다.

6

테마 즐기기  
한여름 날의 치맥수다  
with Master planning 전주

10

테마 에세이  
NO Leave NO Life  
당신의 휴가는 안녕하십니까?

14

백 투 더 픽처  
여름.여.행.  
내가 떠난 그곳

16

테마 인터뷰  
아직 떠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with 정여울 작가

20

테마 돋보기  
휴가,  
육아세상으로 떠나다

24

어서와! 리더는 처음이지?  
“좋은 리더란  
조직의 미래를 만드는 것”  
with 김동도 이사

28

팀과 함께  
세플러코리아엔 우리!  
여름엔 물놀이!  
with Tool&Proto type Center

32

식사를 합시다  
온몸에 기운이 뻗~  
삼계탕 전문점 ‘생과방’  
with 전용기 개발

36

덕후열전  
한여름밤의 결전!  
열정이 실력이다  
with 풋살 모임

40

꽃보다 편지  
두근두근  
사랑이 담긴  
손편지가 왔습니다!

44

Schaeffler FOCUS  
모터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  
포물러 E

50

Schaeffler Highlight

54

Schaeffler NEWS

55

Mail Box

# 떠나다

떠나는 마음은 다릅니다.  
떠나는 때도, 떠나는 곳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날 때  
누군가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은  
'떠남'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일상을 끊고 잠시 벗어나는 일.  
그것은 새로운 나를 만나게 하고  
잠자던 나의 근육들을 흔들어 깨우죠.

그리고 그곳에서 건져 올린  
상상 이상의 에너지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기를 돌게 합니다.

오직 떠나야지만  
얻을 수 있는 신비한 명약.

주저하지 말고  
늦지 않게 챙기세요.

# 한여름 날의 치맥수다



## “널 떠났던 첫사랑 기억하니?” “올 휴가는 어디로 떠날까?”

with Master planning 전주

여름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이다. 더운 날씨 탓도 있고, 한 해의 반이 지난 허무함도 있겠다. 그래서 심포 같은 '떠남'이 절실해지는 요즘이다. 여름호 테마는 '떠나다'다. 테마 즐기기를 시작으로 떠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그 일환으로 우리의 흥미를 유발할 첫사랑과 휴가지에 대한 사우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한여름, 빼놓을 수 없는 치맥과 함께.



## About 날 떠난 첫사랑.#1

'내가 만약 달이 된다면  
지금 그 사람의 창가에도  
아마 몇 줄기는 내려지겠지'  
김소월의 시 '첫사랑'의 일부분이다.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렇다. 우리에게도 절대 잊지 못할 '첫사랑'이라는 추억무기가 있다. 아련풋하지만 미소 지어지는 그때 그 시절... 하지만 첫사랑의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못 한다는 현실 통계가 있으니... 우리의 첫사랑은 대부분 새드 엔딩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말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가는 도대체 나를 왜 떠난 걸까?

### Q. 당신의 첫사랑은?

주경렬 주임 • 그녀의 이름은 성모 양입니다. 성격이 참 좋았고, 고민이 있을 때 지혜로운 충고를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김태훈 • 저는 첫사랑보다는 짝사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합기도장에서 만나 함께 운동을 했었죠.  
신동관 • 고등학생 때 미팅을 나가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우유 빛 갈 피부에 긴 생머리는 제 마음에 지진을 일으켰죠.  
송은미 • 세플러코리아에서 만난 제 첫사랑은 자상하고, 배려 깊은 영국 신사 같은 사람이었죠. 우훗~

### Q. 첫사랑이 날 떠난 이유는?

주경렬 주임 • 제 첫사랑은 절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죠.  
(순간 주위의 원성 폭발. 첫사랑에 대한 솔직한 인터뷰를 하지 않는 다며 동료들은 야유를 던진다. 하지만 주경렬 주임은 나의 첫사랑은 집에 계신 그분이라며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태훈 • 취직을 위해 고향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동관 • 저의 첫사랑은 노래 가사처럼 '사랑과 우정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다가 잠시 연락을 못한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다는 전화를 받았죠.  
송은미 • 제 첫사랑도 주경렬 주임님처럼 집에 계시네요. 그 어렵다는 첫사랑과 제가 결혼을 했네요.(웃음)



### Q. 첫사랑, 기회가 된다면 만날까?

주경렬 주임 • 같이 살고 있는데, 월요~  
(다시, 동료들의 성화가 이어진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라며 동료들이 볼멘소리를 하지만, 주경렬 주임은 두 눈을 질끈 감는다.)  
김태훈 • 나가지 않을 겁니다.(단호하게)  
신동관 • 만나지 않을 겁니다. 과거이고, 추억일 뿐이죠.  
송은미 • 제 그분도 집에 계시서 굳이 따로 만나지 않아도 되겠네요.(동료들의 눈치를 살피며)

### Q. 첫사랑에게 한마디.

주경렬 주임 •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김태훈 • 잘 살길 바란다.  
신동관 • 행복해라~  
송은미 • 지금처럼만 부탁해!

잠 오지 않는 밤, 문득 생각나는 첫사랑.  
'참 좋았다'는 걸 부정할 순 없지만 사랑도, 이별도 그때였으니 좋았으리라.

## About 여름휴가 어디로 떠날까? #2

'열심히 일한 지어 떠나라'라고 누군가 말했다. 누군지 선명하지는 않지만 공감 100%의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매년 떠난다.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들고, 힘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 Q. 내 생애 최고의 휴가는?

**주경렬 주임** • 2년 전, 친구의 초대로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마음대로 즐겼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런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해서 더 기억에 남고요.

**김태훈** • 저는 여기 있는 주경렬 주임과 신동관 사우와 함께 격포항으로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지말 조금 보태서 제 팔 길이만한 광어를 잡아서 펄쩍 튀며 좋아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광어가 날개짓을 하며 다시 바다로 뛰어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추억이지만 그래도 잊을 수가 없네요.

**신동관** • 신입사원 때 회사 선배님들과 지리산 야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산도 오르고, 고기도 굽고, 계곡물에 몸도 담그며 놀았죠. 걱정 없던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송은미** • 작년 가을,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난생처음 아이들 위주로 일정을 짜 시간을 보냈죠. 여행 내내 해맑게 웃던 아이들 모습에 저도 행복했습니다.

### - 전주공장 MPNL -



### Q. 휴가를 계획할 때 내가 가장 고려하는 것은?

**주경렬 주임** • 가족이 지내기에 편안한 곳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평소 회사 일이 먼저인 것이 미안해서, 휴가만큼은 가족들을 철저히 생각하죠.

**김태훈** • 아이들이 크다보니 아이들 시간 맞추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고려합니다.

**신동관** • 저는 휴가지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내게 여유를 주고 휴식을 줄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송은미** • 아이들이 어리다보니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 Q. 휴가 후 나의 컨디션은?

**주경렬 주임** • 아쉬움이 가장 크죠. 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다음 휴가를 기다리게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김태훈** • 저는 아쉬움보다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휴가 전에는 온갖 스트레스로 무기력했다면, 후에는 심신이 가뿐해져서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신동관** • “자~ 놀았으니, 다시 달려볼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잘 먹고, 잘 쉬었으니 못할 일이 없는 천하무적 마징가 제트로 빙의하죠.

**송은미** • 휴가는 어쩔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늘 아쉽고, 또 빨리 만나고 싶고 그래요. 하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즐겁게 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힘을 내죠.

### Q.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휴가란?

**주경렬 주임**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최고죠.

**김태훈** • 가족끼리 서로 얼굴 보고 있는 게 제일이죠.

**신동관** • 완벽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요.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요.

**송은미** • 몸과 마음이 편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 번쯤은 남편과 아이들 없이 나만을 위한 휴가를 가보고 싶네요. 살면서 한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요?(웃음)



왼쪽부터 송은미, 김태훈, 주경렬 주임, 신동관

어깨의 곰도 마음 속 티끌도 털어버릴 나의 휴가.  
남은 반해도 열심히 뛰어야 하니 후회 없이 열정적으로 보내리라.

# NO Leave NO Life 당신의 휴가는 안녕하십니까?



7말8초, 바야흐로 휴가철이다. 대한민국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은 이때에 휴가를 떠난다. 회사 눈치보고 거래처 눈치보고 동료들 눈치 보며 어렵게 휴가를 얻어 가족들을 태우고 휴가 길에 오르게 된다. 그러다가 꼭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떠오른 의문 한 가지. 7말8초가 되면 일제히 휴가를 떠나고 싶은 욕구가 총만해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 휴가를 떠나지 않겠다고? 신뢰 못할 사람이군!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 한다. 이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 독일인들은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보다는 '신뢰감이 떨어지고 조급하다'는 인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밀려드는 일을 핑크 내지 않기 위해 혹시라도 올여름 휴가를 반납할 마음을 먹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그 생각부터 접으시라.

여름휴가는 직장인들에게 양면적 존재이다. 휴가라고 하면 가족들을 이끌고 이름난 휴양지를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엔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휴가지에서조차 편안하게 쉬지 못하고 '1분이라도 아껴 더 놀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동하기 일쑤이다. 이렇게 다녀온 휴가 뒤에는 삭신이 쭈시는 후유증이 남는다. 이쯤 되면 휴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휴가는 休暇다. 休家가 아니니 휴가를 '방콕'으로 이해하지는 말 일이다. 休暇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강제적으로 일을 멈추고 쉰다'는 뜻이다. 무조건 강제적으로라도 일을 쉬고 느긋하게 쉬는 것. 그게 '휴가'라는 말 속에 담긴 함의이다. 프랑스의 휴가는 바캉스이다. '근로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이다. 이 단어는 원래 '비우다'라는 뜻의 라틴어 바카레(vacare)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물론 이는 사전적 의미일 뿐이다. 누군가에게 쉰다는 것은 신나게 논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말 그대로 하던 것을 멈추고 그대로 드러누워 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의 쉼은 어떤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는 쉼이 무엇인지 알아야 진정한 휴가가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쉼의 궁극에는 삶의 충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휴가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깨끗하게 비워내고 다시 가득 채우라는 뜻이 아닐까.



## 재가 되고 싶지 않다면 떠나라

요즘 직장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번아웃'이다. 스스로를 '완전히 태워져 재박에 남지 않은 상태'로 여긴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래한 번아웃증후군이란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지는 증상이다. 시간에 쫓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증상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정의할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가볍지 않은 증상이다. 이런 증상에 딱 맞는 특효약이 있기는 하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스스로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는 것이 최고의 명약이다. 세상의 명약이 다 그렇듯이 이런 명약은 구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이럴 때 직장인들이 비타민처럼 몇 알씩 가볍게 삼킬 수 있는 것이 '휴가제도'이다.

1년 365일 중 직장인에게 주어지는 휴가는 평균 15일. 2019년에는 104일의 주말과 공휴일 13일까지 총 117일의 휴일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마음껏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직장인의 현실이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멈추자니 사방에서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밀려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조직문화도 문제이다. 연차라도 쓸라 치면 사방에서 날아오는 '찌릿'한 반응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휴가가 조직을 살리고 경제를 살린다

그런데 번아웃증후군이 개인에게만 위험한 증상이 아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단순한 스트레스의 차원을 넘어 무기력함에 빠져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될 경우 조직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마다 번아웃의 구렁텅이에 빠진 구성원들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한 대기업의 임원이 부서 전체 직원들과의 SNS 대화방에 “회사 지침에 따라 2주간 여름휴가를 다녀오겠다.”는 메시지를 남겨 화제가 되었다. 임원들이 장기 휴가를 통해 연차를 쓰면 직원들도 자유롭게 휴가를 가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휴가는 노동자들만을 위한 일방적인 제도가 아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충분한 휴식과 휴가가 생산성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떠받쳐주는 필수 조건’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적절한 휴가의 보장은 직장인들의 전반적인 삶과 조직은 물론이고 나라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민 여러분,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제발 놀러 갔다 오세요.”

이것이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캠페인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실제로 호주 정부가 국제 금융위기의 시련 속에서 경기불황을 겪던 2008년 무렵부터 시작한 ‘No Leave, No Life’ 캠페인이다. 당시 호주 정부는 2010년대 중반까지 줄기차게 국민들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해 내수경기 진작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휴가가 길기로 소문난 프랑스의 노동생산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을 보면 휴가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적지 않은 듯하다.

### 방전된 심신에 에너지를 채워 다시 일터로

그러니 조직과 국가를 사랑하는 직장인이라면 과감하게 떠나고 볼 일이다.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고 방전된 심신에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여 다시 일터로 돌아오면 휴가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것이다. 모두가 긴 휴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부재 기간 중 업무 인수인계가 시스템화 되어 있는 조직문화, 서로의 휴가를 축하해 주고 응원해 주는 조직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바야흐로 2019년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직장 조직 문화에 자신을 구겨 넣을 생각이 없는 밀레니얼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더 가속도가 붙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유연한 기업문화가 아니면 과감한 퇴사를 택하기도 해서 기성세대를 기함하게 만들지 않는다.

긴 휴가를 다녀오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겸손해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며칠 혹은 몇 주간 자리를 비웠는데도 아무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마음 수양은 덤이었던 셈이다. 나의 여름휴가가 조직을 건강하게 하고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자. 미안해 할 일도 눈치 볼 일도 아니다.



**NO  
Leave  
NO  
Life**



“어머니, 누나와 오사카에 갔을 때입니다. 특히, 유니버설 스튜디오 투어를 열심히 했는데요, 몸은 피곤했지만 즐길거리가 다양해 정말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여행 내내 소녀같이 행복해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에는 감기로 동행하지 못한 아버지도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전용기 개발 이홍우 연구원

# 여.름. 여.행. 내가 떠난.....

“아내와 함께 헤이리 예술마을에 갔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한국근현대사박물관을 찾았죠. 저희 어릴 때 물건들이 고스란히 전시돼 있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더군요. 그 중에서도 고교 시절 교복을 입고 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은 같은데, 왠지 어색해 보이는 건 왜 일까요?  
세월의 흐름은 야속하지만, 그래도 항상 함께하는 그녀가 있어 행복합니다.”

● 설비보전 안산 유갑수



“시드니 포트스테판으로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재미 삼아 점프 설정 샷 찍기 대회를 열었는데, 그만 제가 1등이 되고 말았네요. 수상한 이유는 너무 멋지거나 높아서가 아니라 ‘너무 짧아서’였답니다. ^^;;

● 품질보증 테이퍼베어링 MU 최한호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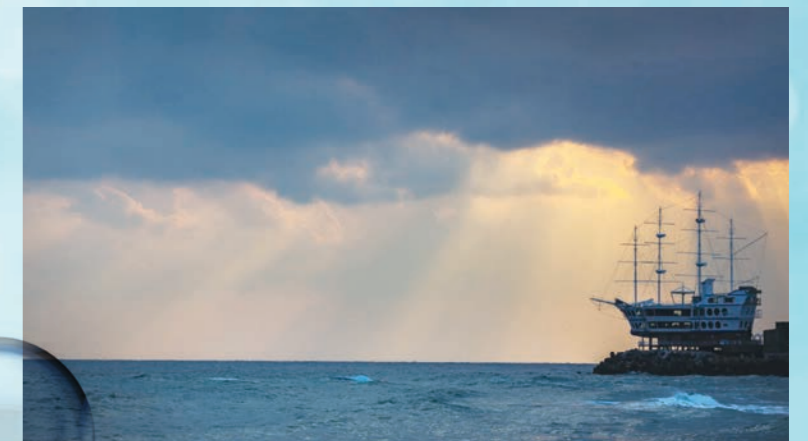
“작년 여름, 가족들과 인제 백담사 캠핑장에 갔을 때입니다. 계곡물에 발 담그며,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며 시원한 여름을 보냈죠. 저를 똑닮은 저희 아이들 신난 표정 보이시나요? 여행은 역시,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안성물류 반구섭 주임

# ...그곳

“평소 어딜 가든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이 사진도 작년 여름 정동진으로 휴가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가만히 걷다 바다를 바라보니 뜻밖의 풍경이 펼쳐져 급히 카메라에 담았네요. 갈 때마다 새롭고 아름다움이 더한 정동진. 혼자 보기 아까워 사보를 통해 공유합니다. 어떠세요? 정동진으로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 설비보전 안산 최춘현





# 아직 떠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여울 작가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문학, 심리학, 여행 세 가지로 압축된다. 서울대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정여울 작가는 2004년 문학평론가로 등단한 이후 10여 년간 독학으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글 속에 심리학을 접목한 에세이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들>로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랐고, 10여 년의 배낭여행 끝에 낸 <내가 사랑한 유럽 톱10>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인생의 전환기가 있었다면 그건 20대 후반에 시작된 '여행'이었다.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대학 강단에 서기 위해 애쓰던 그가 아웃사이더가 되어 어느 날 자유롭게 '떠나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 글쓰기, 조금씩 새로워지려는 노력

정여울 작가는 소문난 다작가이다. 끊임없이 책을 출간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글을 기고한다. 지금까지 출간한 책들만도 30여 권에 이른다. 대부분 2010년대 이후의 작품들이다. 펜에 엔진이 달린 사람처럼 지치지 않고 글을 써내는 달필가이다. 본인은 '다작'이라는 말에 상처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의 문장은 또한 수려하기로 정평이 나있으니 세간의 모든 평가는 부러움이 8할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을 작가로 인정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2013년 첫 번째 에세이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들>을 출간한 후 비로소 '나는 작가'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참고문헌이 있는 논문을 써야했고 문학평론도 타인의 텍스트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내가 과연 창조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들>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계산하지 않고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쓴 책이었는데 다행히 독자들이 좋아해 주었습니다. 독자들의 편지를 받으면서, 제 강연에 찾아온 독자들의 따스한 눈빛을 보면서, 진정으로 작가가 된 느낌이었어요. 제 책을 옆집 언니나 누나의 다정한 위로처럼 느껴주신 독자들 덕분에 저는 작가가 될 수 있었어요."

정여울 작가는 쉬지 않고 글을 쓰지만 새로운 시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작가 스스로도 "내가 쓰는 모든 책들은 기존 작품들보다 조금씩 새로워지려는 노력이고, 과거의 책들을 징검다리 삼아 또 다른 도약을 꿈꾸는 시도다"고 말하곤 한다. 2018년에 한 해 동안 매달 한 권씩 출간한 12권의 <월간 정여울>시리즈도 작가로서 파격적인 시도였다.



## 낮은 자존감, 강의 공포증

"나를 지탱해주는 삼각형의 버팀목이 있어요. 문학, 심리학 그리고 여행입니다. 문학과 심리학이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존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밑바탕이라면 여행은 마치 보이지 않는 날개처럼 나를 자유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공부하고 추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 내가 진정 살아있음을 느껴요."

정여울 작가가 쓴 대부분의 책이 독자들의 감성에 공명하는 지점은 참 특이하다. 작가의 이야기 같지 않고 온통 다 내 이야기 같다.

자신의 내면에 오랫동안 움크려 있던 트라우마를 발견하고 이를 심리학 공부로 치유한 작가의 경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프로이트를 거쳐 융의 세계까지 입문하면서 문학도, 여행도 심리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무대 공포증도 심했습니다. 강의를 하거나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심할 때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생활도 했습니다. 그게 나를 방어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심리학에 빠진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상처받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지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재원이다. 20대 후반부터 문학평론가로 등단하고 강사로 강의를 시작했으니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출발이었다. 그가 뭐가 모자라 자존감이 낮아 강의 공포증까지 겪었을까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자존감은 스펙이나 환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 중에도 자존감이 낮은 이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저 역시 너무 많은 기대 속에서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점점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서른 살 때까지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지요.”

순전히 독학으로 시작한 공부였지만 박사학위를 받을 때보다 더 ‘맹렬하게’ 파고들었다.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 혹은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 위해 시작한 공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0여 년간 공부하고 나니 심리학이 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들>이 첫 사례가 되었다.

“그 책이 출간된 후 고민상담을 하고 싶다는 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전문가도 아닌 내가 자칫 사람들의 상처를 잘못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분들이 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치료와 치유는 다르거든요. 의사나 상담사들의 영역인 ‘치료’와 달리, 진심어린 공감과 사랑이 있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에 출간한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라는 책도 심리학을 정여울 작가의 방식으로 풀어낸 책이다.



### 여행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취직을 하기 위해 애쓰던 시절이 있었지만 조직생활 속에서는 도저히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황량한 벌판 위에 홀로 남더라도 기필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시간과 돈이 부족하더라도 온갖 아이디어를 다 끌어 모아 매년 배낭여행을 떠나는 삶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저를 둘러싼 기대와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한 것은 스물아홉 살 무렵이었다. 그 시절 그에게 여행은 ‘탈출’에 가까운 시도였다고 한다. 가족으로부터의 탈출, 학교로부터의 탈출, 고민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며 떠난 첫 유럽여행은 더없이 행복했다고 회상한다.

“사회화된 나는 내면의 나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조차 늘 목적이 있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나면 평론을 써야하다든가... 그런데 여행은 목적이 없는 행위였어요. 평소의 나와는 다른 감성의 근육을 쓰려면, 나를 아무도 모르는 세계로 향한 여행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된 거지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을 쓸 수만 있다면, 모든 걸 참을 수 있었어요. 이 책을 쓴 후, 다음 책을 쓸 수 있는 원동력만 얻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라는 목적에 욕심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 아직 떠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 해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도, 글 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여행의 경험을 글로 옮기기 시작한 것은 여행을 시작하고도 5~6년이 지난 후였다.

“여행의 경험과 느낌만으로 글을 쓴다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의 글들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여행을 다녀온 후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인문학적 이해의 폭을 넓혀가다 보면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진짜 내면의 여행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어요. 같은 장소를 여러 번 여행하다가 장소가 나에게 아주 특별한 내면의 이야기를 걸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올해 출간한 <빈센트 나의 빈센트>도 여러 차례 고희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하면서 무려 10년을 묵혀서 얻은 결과물이다. 여행할 때마다 얼른 글로 쓰고 싶다는 조급함이 생겼지만 누르고 눌렀다. 많은 독자들의 후한 평가처럼 정여울 작가의 여행에세이들이 깊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오는 9월에는 독자들과 함께 빈센트 반 고희의 흔적을 찾아 남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지로 떠나는 유럽여행을 계획 중이다.

“작년에는 <내성적인 여행자들> 출간 기념으로 동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독자들과 굉장히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올해는 <빈센트 나의 빈센트>독자들과 함께 고희의 삶과 사랑과 열정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기획 중입니다. 앞으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있다. 올 여름 여행길에는 여행안내서 대신 여행에세이 한 권쯤 챙겨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정여울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내성적인 여행자들>도 좋겠다.

“여행을 떠나면 대개 유명한 곳, 웅장한 곳을 많이 찾잖아요. 여행안내서에도 그런 곳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죠. <내성적인 여행자들>은 내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던 작은 도시들, 혹은 유명한 도시의 후미진 골목을 거닐다가 내 속에서 나만의 소박한 이야기가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들을 다룬 책입니다.”

그런 책이라면 당신의 여름휴가 여행지가 비엔나나 파리처럼 해외의 유명한 도시가 아니어도, 그저 동해의 이름 없는 시골길이어도 좋을 이유를 조곤조곤 말해주지 않을까.



# 휴가, 육아세상으로 떠나다

여기에 화려한 휴양지도, 럭셔리한 호캉스도 아닌 육아세상으로 휴가를 떠나는 아빠들이 있다. 어깨가 무거웠을 아내와 아빠의 품이 그리웠을 아이를 위해 과감히 육아를 전담하겠다고 손을 들은 것이다. 평생 잊지 못할 당신의 휴가지 '육아세상'.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그들의 육아에세이를 소개한다.



## 육아는 행복한 이등병

form.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이지형 과장

저는 하윤이(딸/5세), 재인이(아들/3세) 아빠입니다. 맞벌이인 만큼 육아는 저와 아내가 같이 합니다. 첫째 때는 모르는 것 투성이라 어려웠다면 지금은 하나가 아닌 둘이라 힘이 듭니다. 육아는 남자들이 가장 돌아가기 싫은 이등병 수준의 스트레스라고 하면 공감이가실까요? ^^;; 이유 없이 울거나, 갑자기 투정을 부리거나, 온갖 말썽을 부려 체력을 급속히 소진시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는 행복 그 이상입니다. 태어나서 가장 힘든 경험이지만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도 없던 것 같습니다. 엉뚱한 애교로 목직한 피로를 한방에 녹이고, 활짝 웃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즐거움을 주니까요. 요즘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많습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삶의 이유는 아이들이 돼버렸죠. 나를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아이들에게 고맙고, 이 힘든 걸 묵묵히 참아내며 함께 해주는 아내에게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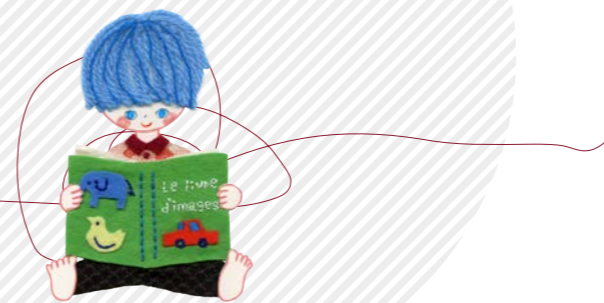
## 아이들은 잘 때가 제일 예쁘죠!

form.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이태양 차장

올해 초 미리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고, 휴가 시즌에 유준이(아들/4세), 유민이(아들/2세)를 데리고 어디를 간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방콕 육아를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육아에 적극적인 편은 아닙니다.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정다감한 스타일도 아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최대한 노력해서 너그러운 아빠가 되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현실과 이상은 다르더군요. 올해로 4춘기를 맞이한 첫째 유준이가 가끔 통제 불능이 되면 저도 모르게 우렁찬 목소리와 레이저 눈빛을 발사하게 됩니다. 물론 금세 반성하고 마음을 가다듬긴 하죠.

혹시 아이들은 잘 때가 가장 예쁘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부모는 아이들이 잘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낮에 혼났던 일을 사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예뻐서 뽀뽀하고 만지작거리고... 이 녀석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출근 배웅을 하고, 저녁에는 힘차게 뛰어나와 반겨줄 때는 온 세상이 내 것처럼 든든하죠. 아빠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는 우리 유준이, 유민아~ 아빠가 앞으로는 하늘 뚫고, 우주를 뚫을 만큼 더 많이 사랑해줄게!



#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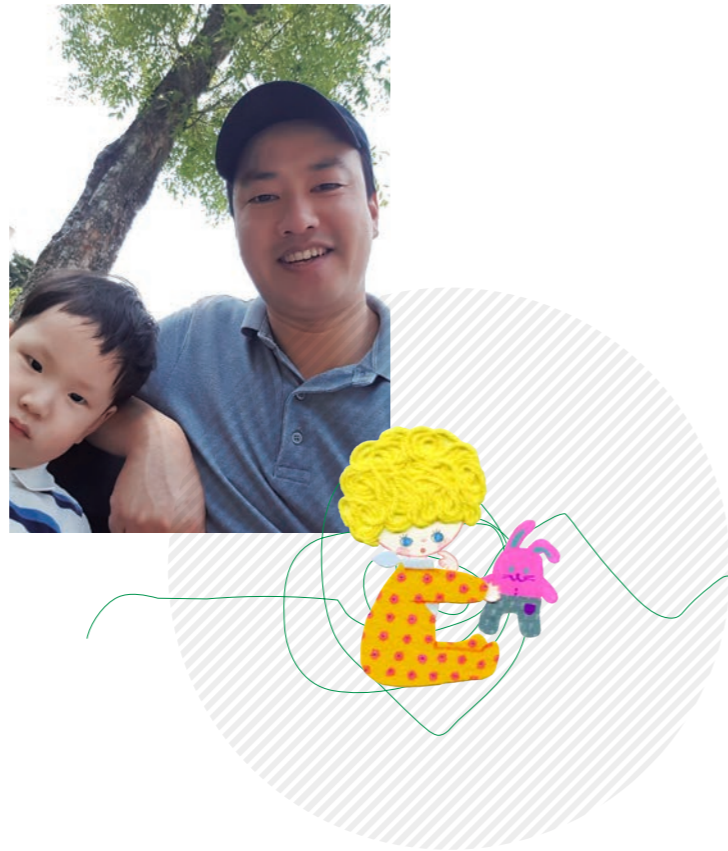
저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놔요 제발 날 찾진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도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bye bye~

Take me to new world anywhere 어디든  
답답한 이 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Shining light light 빛나는 my youth  
자유롭게 fly fly 나 숨을 셔

볼빨간사춘기 <여행> 중에서



QR코드로 음악 감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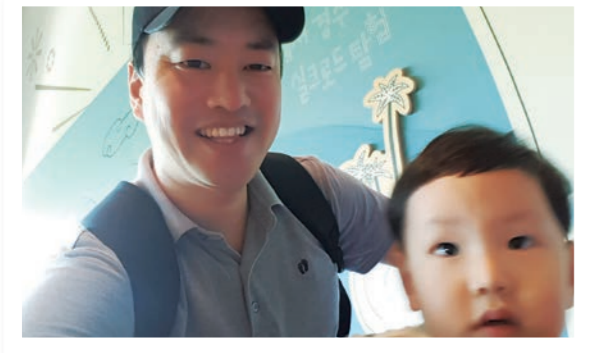
## 매일 밤 케이오

form.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장후영 과장

저는 주원(아들/4세), 주호(아들/1세)의 아빠입니다. 지난 4월 둘째가 태어나서 강제적으로 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휴가를 갖더라도 그곳에서 육아를 하고 있었겠지요. 제가 예전보다 조금 더 육아에 적극적으로 투입된 것은 둘째의 탄생 이후부터입니다. 솔직히 육아를 경험하기 전에는 '애 보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든나, 뉴스에서 주부 연봉을 산정할 때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아는 동물인가 봅니다.

육아는 3D 업종 수준 이상의 일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 목욕시키고, 집안일 한두 개 도와주면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케이오 상태가 됩니다. 쓰러지기 직전야 결국 자리에 누울 시간이 되는 것이죠. 솔직히 제가 도와주는 육아의 시간은 2~3시간 정도랄까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아내가 곧잘 해내고 있으니 존경스럽습니다. 결혼 전, 손에 물 묻히지 않고 호강시켜 준다며 큰소리쳤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자기야! 내가 말 할 수 없이 사랑해. 그거 알고 있지? 고맙데이~"



# “좋은 리더란 조직의 미래를 만드는 것”



창원공장 볼베어링 스페셜 베어링 MU 김동도 이사.

리더로 자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직에는 그로 인해 적지 않은 변화들이 생겼다.

특히 올 한해는 볼베어링 MU를 1등 조직을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해, 낭비, 편차, 불합리를 줄이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팀을 선보이겠다.

## 고객사 'Defect 0' 달성

김동도 이사는 91년에 생산부서 엔지니어로 입사해 20년 동안 볼베어링을 만졌다. 그 후로 6년 동안 품질보증 업무를 거쳐, 올해 1월 볼베어링 MU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었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제 자신에게 수 백 번을 되물었죠. 그러던 중에 조금씩 확신이 차올랐어요. ‘너는 이 분야의 최고다. 잘 할 수 있어!’라고요. 마음 준비가 된 뒤로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리더의 자리.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았다. 그 중에서 비전과 미션, 목표 수립 등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가 시급하게 문제해결력을 발휘한 부분은 바로 ‘불량제로’ 달성이었다.

“일본 자동차 고객사 중 마쓰다(mazda)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1~2건 씩 불량품으로 인한 컴플레인 끊이지 않았더라고요. 급기야 거래 중단 위기까지 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 들여다보고, 직원들과 갖가지 대안을 마련해 현장에 직접 적용시켜보기 바빴죠.”

그래서일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품질 부분의 성과가 타 MU와 견줄만해졌다. 특히 마쓰다의 ‘고객만족, 불량제로’의 성과는 팀의 사기를 높여 냈다.



## 설비종합효율 향상 프로젝트의 성과

김동도 이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이다. 높아지는 임금 탓에 생산성이 자주 낮아져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현재, 어느 조직이나 같은 문제를 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 중일 겁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비종합효율(OEE) 향상 프로젝터를 작년 말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조직 강화를 통해 그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설비종합효율(OEE)이란 공장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기준이다. 즉 공장의 시스템 중 어디가 취약한 지를 판단해 그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설비를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해결하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낭비를 발생시키는 공정을 개선하고 부수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과정들을 제거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전년 대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생산성을 생각하면 지금의 노력들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 나의 싱크탱크는 책, 책, 책

산적해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는 김동도 이사. 그의 싱크탱크는 다름 아닌 책이라고 말한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현장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도 있지만 조직을 이끌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늘 책을 가까이 합니다. 경영의 구루들의 책들을 꾸준히 읽어왔고, 최근에는 권오현의 <초격차>를 읽고 현장 경영의 지침을 얻었죠. 그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소중한 내용들을 체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책상 한쪽에 있는 손때 묻은 두꺼운 노트가 눈에 띄어 그에게 물었다. “아, 썩스럽네요. 이건 제가 책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나, 정보, 중요한 구절 등을 적어 놓은 것 입니다.”

가지런한 글씨체와 빼곡할 만큼 촘촘히 박힌 글자들은 그동안 그의 성실함과 열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책을 통해 얻은 소중한 내용들을 현장에서 활용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죠.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간다면 잘 되리라 믿습니다.”

1등 조직의 기반이 되는 Q(Quality), C(Cost), D(Delivery)를 정상화하고, 조직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리더로 성장하겠다는 김 이사는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 신발 끈을 질끈 매어 보겠다는. 늘 겸손과 진솔함으로 조직원들을 대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일까? 촬영 내내 많은 동료들이 함께하며 그를 응원했다.



고객만족의 근본은  
직원들의 즐거움과 행복임을 믿습니다!  
힘나게, 신나게 일할 우리들의 구호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솔함, 겸손, 통찰력, 결단력

조직의 미래를 만들

1번 기호 김동도



“당신은 창원공장의 미래!  
MU장님의 살인미소에  
스트레스가 녹습니다.”

천명진 생산계획팀장



MU장님이 말하는  
FunFun한 MU,  
저 또한 따르겠습니다!”

이원용 품질보증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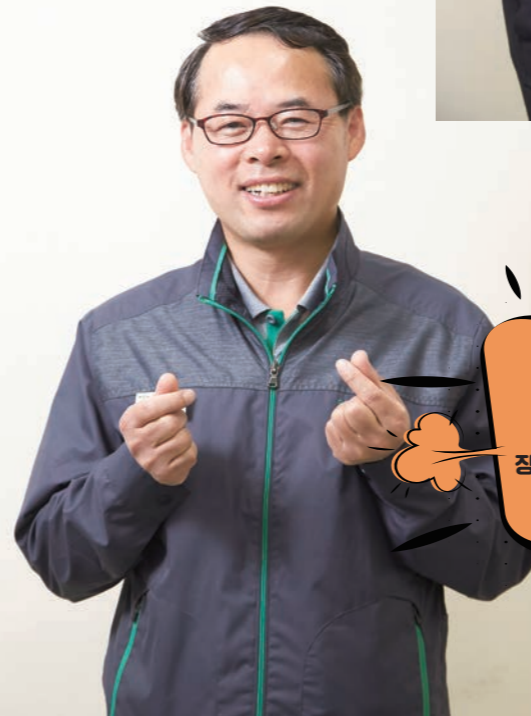
“김동도 이사님은  
긍정바라기,  
나는 당신바라기~”

최선호 소형 불베어링 세그먼트장



“이사님 오셨으니,  
그룹 내 1등 조직은  
시간 문제지라잉~”

최규하 설비보전팀장



“일심동체 MU1,  
블로장생 MU1”

장치수 불베어링 열처리 세그먼트장





**세플러코리아  
비밀병기**  
Tool&Proto type Center

## 세플러코리아엔 우리! 여름엔 물놀이!

●  
Tool&Proto type Center는 창원공장의 치공구 설계 및 제작과 고객에게 의뢰 받은 개발품을 제작하는 부서다. 올해로 팀이 생긴 지 4년, 사무실 인원이 6명에서 젊은 인원들이 충원되어 현재 14명이 되었다. Proto type Center의 경우, 2016년에 2형번의 개발품 제작을 시작으로, 2017년 117형번, 2018년 200형번을 개발했으며, 올해는 350형번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옐로우리버비치에서 리프레시 하기

창원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합천 옐로우리버비치는 황강에 설치해 놓은 대단지 물놀이 시설이다. 수심이 깊지 않고, 곳곳에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있어 남녀노소 즐기기에 적당하다. 오늘의 주인공 Tool&Proto type Center의 평균연령은 30대 중반이다. 그래서일까? 팀원들 모두 비트감 있게 흘러나오는 테크노 음악에 몸을 맡기며 리듬을 타고 있다. “여름에는 물놀이죠! 테크노 음악을 들으면서 시원한 물줄기를 맞는 것. 이것이야말로 젊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팀을 알리고 싶어 사보편집실에 먼저 노크한 박기득 대리는 제법 단단해진 Tool&Proto type Center를 사내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 처음에는 팀원도 성과도 미비했지만 갈수록 존재감을 과시하는 있는 중이라고. “저희 팀 분위기는 항상 유쾌하고 활기칩니다. 팀원들이 젊다 보니 의사결정도 자유롭죠. 오늘 워크숍 장소도 저는 낚시를 원했지만 다수결의 뜻에 따라 이곳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고 나니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젊어진 기분입니다.” 늘 팀의 창의성과 열정을 꺾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손중오 팀장은 팀은 리더가 이끌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팀원이 함께 발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팀이 생기고 난 후, 처음 갖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린 팀원들이 참 고맙죠. 오늘만큼이라도 일 걱정 안하고 열심히 리프레시하면 좋겠습니다.”



# YELLOW RIVER BEACH



“안 그래도 저희 팀은 마음이 잘 맞는데, 이런 시간을 함께 하니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팀의 막내 격인 이태구 사원이 오늘의 소감을 말하자 팀원들 모두 환호성을 지른다.  
 “오~ 우리 태구! 말 잘하는데~”  
 “오~ 우리 태구! 그렇게 생각했었엉?”  
 죽이 척척 맞는 화기에애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올해 목표를 거뜬히 달성하고 싶다는 손 팀장은 팀원들에게 엄지를 치켜들며 잘해보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모두들 알았다는 격려의 박수를 나누고, 저녁메뉴인 삼맥소(삼겹살+맥주+소주)를 향해 발길을 재촉한다.



**Tool&Proto  
type  
Center**

“자~ 어디 물맛 좀 볼까요?”

‘팀과 함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기 위해서 설정은 버리기로 했다. 평소 노는 만큼 신나게 즐기라는 주문을 던지니 “자~ 어디 물맛 좀 볼까요?”라며 너나할 것 없이 물속에 몸을 던진다. 뜨거운 햇빛과 30도를 웃도는 날씨는 되레 시원함을 더해준 걸까?

황강의 물이 이렇게 반가울 수 없다며 친진한 리액션들이 터져 나온다. 미끄럼틀 타기, 튜브 빨리 달리기, 다이빙까지 아낌없이 살뜰하게 시설물들을 이용하는 팀.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닌가 보다.

“자~ 지금부터 물총싸움을 시작합니다. 어서 분수대 앞으로 모여주세요!” 디제이의 안내방송이 들리기가 무섭게 팀원들은 일사천리로 물총을 잡는다. 열정과 패기를 보여주고 싶더니 물총싸움에서도 불꽃이 튀는다. 승패를 갈라야 한다며 열심히 도망가고 열심히 쫓는다. 그러다가도 자연스럽게 음악을 타는 건 자유로운 청춘임을 말해준다.

“팀장님~ 배고파용~”

그리 놀았으니 배꼽시계가 울릴 만도 하다. 애교 섞인 박명민은 사원의 요청에 푸근한 팀장님은 김밥과 떡볶이, 순대, 소시지 등 넉넉한 한상을 내어준다. 웅기종기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아무리 봐도 친목 모임이 따로 없다.



앞줄 왼쪽부터 박기득대리, 이창원 사원, 이태구 사원, 방민석 과장, 김태희 사원, 서영기 대리  
 뒷줄 왼쪽부터 정해송 사원, 팽중민 사원, 손종오 팀장, 김대봉 사원, 최상구 과장, 나홍경 대리, 박지현 대리, 박명민 사원



# 온몸에 기운이 뻑~ 삼계탕 전문점 '생과방'

맛집 <생과방>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954-6  
055-543-9944

매우 주관적인 평가는 : ★★★★★

넓찍한 주차장과 여유로운 실내,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도 호감도 상승에 한몫을 하네요.



자리를 잡고 앉아 메뉴판을 스캔합니다. 삼계탕, 옷계탕, 산삼 배양근 삼계탕,  
전기구이, 닭강정 등 닭요리는 모두 있네요. 혹시 닭이 별로라면 장어구이,  
등심 돈가스도 있으니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있게 산삼 배양근 삼계탕을 주문했습니다.  
올 여름, 거뜰하게 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만날 맛집은 진해에서 삼계탕으로 손꼽힌다는 '생과방'입니다.  
창원 공장에서 20여 분 떨어진 이곳은 예전에는 단아한 한옥집이었는데,  
삼계탕의 인기 덕분인지 지금은 뽐뽐뽐한 기와집으로 변신했다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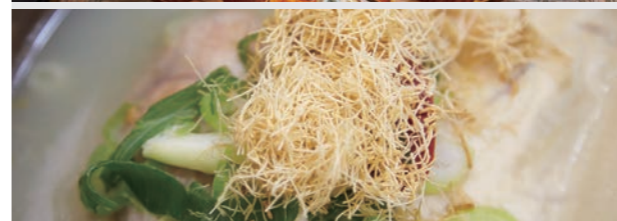
주문을 하니 기본 찬이 나옵니다. 깍두기, 물김치, 오이와 숙주나물.  
맛집이라 그런지 리필 한두 번은 필요하네요.



아, 소면은 삼계탕 국물에 잘 풀어먹으면 된답니다.  
서비스로 제공되는 안심주는 딱 한 잔 분량인긴 하지만 맛이 세지 않고  
은은해 곁들이기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산삼 배양근 삼계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닭 위에 술술 뿌려져 있는 노란 실 같은 것이 바로 산삼 배양근이라고 하네요.



먼저 산삼 배양근과 함께 국물을 맛봅니다.  
'헉...' 다시 한 번 국물을 맛봅니다.  
'헉~' 지금까지 먹어 본 삼계탕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네요.  
'삼계탕이 거기서 거기겠지'라는 속마음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테이블에는 "후루룩, 찹찹, 카~, 스읍~" 삼계탕을 음미하는 소리뿐입니다.  
어느새 뚝배기 그릇은 말끔히 비워지고 진영칠, 김기성, 조오수,  
정성주 주임은 배를 어루만지며 이마의 땀을 닦습니다.  
"이야~ 정말 맛집이네! 가족들 데리고 꼭 와야겠어."  
"오늘 보양식 제대로 먹었네~ 힘이 나는구만"이라며  
<식사합시다>의 즐거움을 기본 좋게 풀어냅니다.



앗, 식사 후에는 한잔 더 마시고 싶은 맛갈 나는 수정과가 나오니  
꼭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매일 보니  
정들고  
마음 맞아  
가족 같죠!

왼쪽부터 조오수 주임, 정성주 주임, 진영철 주임, 김기성 주임

● **전용기 개발 진영철 전기 & 시운전 조 주임, 김기성 지원조 주임, 정성주 설비조립 1조 주임, 조오수 설비조립 2조 주임이 오랜만에 얼굴을 맞댔다. 그간 바쁜 회사일로 소주 한잔 기울이기 어려웠는데 오늘은 <식사합시다> 출연으로 모처럼 기회가 생겼다. 직장동료지만 형님, 동생하며 지낸 세월이 적지 않은 이들. 여름을 앞두고 걸쭉한 삼계탕 한 그릇으로 기운을 얻는다.**

**달콤한 잠깐의 여유**

전용기 개발의 각 주임들의 사이가 남다른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회사 일은 물론 개인사까지 나누다 보니 세월이 쌓이면서 각별함은 더해졌다. 특히 조 간의 협업이나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 돈독함이 빛을 발한다. “본지 어지간히 됐으니 웬만한 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서로 의견이 달라도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하는데도 편합니다.” 전용기 개발의 든든한 버팀목인 이들은 그간 회사의 어려운 상황들로 어깨가 무거웠는데 사보를 통해 이런 시간을 보내 힘이 난다고. “우리도 이렇게 사보 출연을 해보네요. 나이 먹고 사진 찍으려니 쑥스럽지만 동료들과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름 많고 시커멓지만 예쁘게 찍어주세요!”

**놀 때 놀더라도, 할 건 해야지**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시킬 겸 생과방 뒤편의 고즈넉한 골목길을 따라 발걸음을 맞춘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땀 때마다 그들만의 너털웃음이 길가를 채운다. “아이고, 형님.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는 웃어야지요.” “너나 잘해, 임마~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초등학교 아이들이 티격태격하듯 한없이 즐거워 보이는 네 사람. 회사 이야기, 아이들 문제, 부동산 정보, 오늘의 뉴스 등 한참 담소를 나누더니 김기성 주임이 시계를 본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처리할 일이 있어 들어가야겠습니다.” “잘 먹었으니, 다시 힘 좀 내볼까?” 누구 하나 다그치지 않았지만 자동반사적으로 회사 일정이 몸에 밴 주임들. 놀 때 놀더라도 할 건 해야 한다면서 종종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연인들은 오래 볼수록 사랑이 식는다고 했던가? 하지만 40년 가까이 세플러와 함께 한 이들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기만 하다.

TALK.  
TALK..



SCHAEFFLER

← 그룹채팅 4 김기성 주임, 조오수 주임, 정성주 주임, 진영철 주임

정성주 주임: 짧은 시간이었지만 올 주임들과 맛난 건강식으로 깊은 소통 넘 즐거웠음. 앞으로도 종종 이런 미팅을 가져보아요~^^

조오수 주임: 네네네, 삼계탕 덕분에 요즘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김기성 주임: 삼계탕은 진짜로 맛있는데, 사진 찍기 힘든 거 생각하니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는가 봐요.

진영철 주임: 우리 어색하게 나오겠지? 많이 티 나려나? 그때 조금 더 웃을 것을 ㅠㅠ

정성주 주임: 됐어~ 생긴 대로 나오겠지! 멋있게~ 사방사방하게~

조오수 주임: 사방사방에 한 표 투척! 하여튼 생과방 정말 맛집이었어요. 가족들 데리고 꼭 한번 가려고요.

김기성 주임: 난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가려고... 다들 기운 나아 으쌔으쌔를 하자~

진영철 주임: 모두들 덕에 오랜만에 밀린 이야기도 하고 몸보신도 하고, 감사한 마음 만땅입니다!

정성주 주임: 담에도 일상에서 벗어나 인생 미팅 예약요~~~~

조오수 주임: 모키키~~ 오키키~~

김기성 주임: 좋은 추억 감사 감사 ^^

진영철 주임: 자~~ 쉬는 시간 끝났습니당! 이제 카톡 그만하고 일합시당!

● 밤공기가 선선하던 초여름 저녁, 창원NC파크 인근의 인조잔디구장에서 창원공장 풋살 모임(SOS:Schaeffler office soccer, 이하 SOS) 회원들의 정기 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사하인축구팀과 사내 전문직축구팀이 합류해 3파전의 축구경기를 가졌다. 7시부터 시작된 경기는 11시가 되어야 끝났지만 땀을 비 오듯 쏟아낸 후의 개운함을 즐기는 모습에서 SOS 회원들의 스포츠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뜨거운 축구 삼파전의 시작 마산야구장 뒤편에 위치한 인조잔디구장. 일과를 마친 풋살 모임 회원들이 삼삼오오 도착하기 시작했다. 마침 인근의 대형 야구장에서는 프로야구 경기가 있어 응원객들의 함성이 담장을 넘고 있었지만 회원들은 흔들림 없이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먼저 도착한 회원들은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후 저마다의 방식으로 몸을 푸느라 여념이 없다. 그런데 낯선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도 눈에 띈다. “SOS가 주로 풋살을 즐기는 모임이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다른 동호회와 연합해서 축구경기

를 해요. 오늘은 특별히 사하인축구동호회, 사내 전문직축구동호회와 함께 3파전 축구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3개 팀이 총 8경기를 펼칠 텐데 지난주 모임에서도 호호를 맞춰 본 팀이라 오늘은 더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찍 도착해 몸 풀기를 마치고 인원 체크 중이던 이재호 총무(HR 창원)의 설명이다. 주 52시간근무제가 시행되고 있고, 6월부터는 PC오프제까지 시작되는 등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참석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 한여름밤의 결전! 열정이 실력이다

### 풋살 모임 (SOS : SCHAEFFLER Office Soccer)



#### 우리의 비밀병기는 뜨거운 열정

드디어 경기 시작 휘슬이 울렸다. 상대는 사내 전문직축구동호회이다. 첫 경기는 몸 풀기 게임이라지만 승부욕 강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스포츠가 축구이다. 경기 시작부터 몸싸움이 시작되는 듯했다. 공을 사이에 두고 선수들 간에 발길이 부딪치면서 상대팀 선수가 넘어진 것. 다행히 금세 일어나긴 했지만 덕분에 초반부터 경기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두 팀 다 실력은 비슷하기 때문에 한발이라도 더 열심히 뛰 쪽이 승기를 잡을 수 있어요.”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회원들은 ‘오늘 작전명은 열정’이라며 열정이 곧 실력이라고 입을 모은다. 출전한 선수들도 경기장을 종횡무진 달리고 또 달리며 열정을 쏟아 부은 덕분에 우리 팀에 골 찬스가 여러 차례 찾아왔다.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경기가 팽팽해져 긴장감이 흐른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다. 여러 차례 골문을 두드렸으나 첫 경기는 아쉽게도 무승부로 끝났다. 두 번째 경기는 몸이 풀린 덕분인지 첫 경기보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활발해졌다. “막아 막아, 끝까지!” “받아!” 선수들 간에 주고받는 파이팅 넘치는 소통은 야구경기장에서 들려오는 함성소리에도 꿀리지 않는다. 오프사이드로 공격권을 뺏기면서 먼저 한 골을 내어주자 경기를 지켜보던 이진식 회장(대형 볼베어링 세그먼트)은 “괜찮다, 아직 에이스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았다. 3회전을 기대하라”며 느긋한 표정을 지었다. 이진식 회장의 말마따나 세 번째 경기부터는 확실히 우리 팀이 승기를 잡은 듯하다. 상대팀의 패스 흐름을 끊어내는 실력이 위협적이다. 상대팀 선수가 공을 잡기가 무섭게 우리 팀 선수가 따라붙어 잼싸게 공을 채어가며 경기를 주도해 나갔다. 세 번째 경기는 3:0으로 완승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벤치로 돌아온 선수들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이미 지칠 만도 할 텐데 표정만큼은 생기가 넘친다. “매주 경기를 하니가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살아나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라 업무를 하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회원들은 오히려 한 주라도 경기를 쉬면 더 힘들어해요.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밤 11시까지 아직 5게임이 더 남아 있다. 땀을 쏟아내며 신나게 뛰 다음날 맞이하는 아침은 어느 때보다 훨씬 기운이 넘친다고 한다.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이른 오전 업무에도 열정을 쏟을 SOS 회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 SOS SCHAEFFLER Office Soccer

## 풋살모임

열정만 가지고 오세요!



### 풋살 포지션



골레이로  
골키퍼  
픽스  
수비수(센터백, 풀백)  
아라  
미드필더(중앙미드필더, 윙플레이어)  
피보  
공격수

이름 소속	포지션	주특기	풋살경력(축구)	등번호
심정한 볼베어링 열처리세그먼트	GK	편칭	10년	1번
전승진 생산계획 볼베어링 MU	LB	태클	1년	2번
강문조 협력사 개발	CB,RB	달리기	15년	3번
이진식 대형 볼베어링 세그먼트  (회장)	ST, LW, CM, CB	볼 트래핑	25년	4번
조응래 중형 볼베어링 세그먼트	ST, CM	힘	17년	5번
김종민 협력사 개발	LCM	킥	18년	6번
이준호 중형 볼베어링 세그먼트	ST, LW	달리기		7번
송인도 품질보증 볼베어링 MU	LCM	개인기		8번
노호균 품질보증 창원	CM	부상	5년	9번
홍부길 품질보증 볼베어링 MU(일본파견중)	CM	백태클	7년	10번
김수곤 공정기술 창원 생산기술	CM	체력	6년	11번
김창학 공정기술 창원 생산기획	CM	개인기	19년	12번
김형도 품질보증 창원	DCM	볼 커팅	20년	13번
박지수 품질보증 볼베어링 MU	RB, DCM	체력	10년	14번
정재웅 품질보증 테이퍼베어링 MU	LB	원발	12년	15번
성종민 공정기술 창원 생산기술	CM	원발	8년	16번
기대환 HR 창원	LM	체력	35년	17번
천윤성 공정기술 창원 생산기획	GK, CB	킥	14년	18번
이제호 HR 창원	CB, CM	개인기	20년	19번
차영길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ST, CB	달리기	20년	20번
남진우 생산물류	RB	체력	3년	22번
석상준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ST	원샷원킬	19년	23번
유순학 설비 조립	LB, RB	체력	28년	24번
고진석 Customer sevice 창원	RM	킥	30년	27번
이재홍 테이퍼베어링 열처리 세그먼트	CB, RB	달리기	25년	31번
엄재관 품질보증 테이퍼베어링 MU	CM, CB	킥	20년	32번
곽병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RB	태클	17년	39번
이정훈 사업관리 창원공장	LM	트래핑	18년	50번
이현중 품질 시스템	LB, CM	체력	15년	77번
서영기 톨센터	CB, RB	킥	16년	88번
김동휘 Customer sevice 창원	GK	편칭		91번
조광우 품질보증 창원	RM	체력		99번

#### 모임의 장점은?

회원들의 연령대가 30대부터 50대 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젊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과장님 부장님도 있지만 경기할 때는 모두 계급장 떼고 전력질주 합니다. 부장님들 체력을 보장합니다.

#### 실력도 보나요?

우리 모임의 실력은 열정으로 평가합니다.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오세요. 함께 땀 흘리며 뛰다 보면 실력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 만나면 뭐해요?

우리 모임은 매주 1회씩 정기모임을 가집니다. 풋살경기를 주로 하지만 한 달에 한두 차례씩은 다른 동호회와 연합해 축구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2014년 브라질월드컵이 한창일 때 동료들끼리 '우리도 공차는 모임 하나 만들자'고 시작된 모임입니다. 일곱명으로 시작된 소모임이 현재는 33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규모로 커졌어요. 내년에는 회사의 공식 동호회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 풋살은 베어링이다!

완벽한 베어링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품들, 충분한 시간, 임직원분들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풋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장점과 개성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하나의 완벽한 풋살팀으로서 거듭날 수 있고 상대방과의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 두근두근

## 사랑이 담긴 손편지가 있습니다!

세플러코리아는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사랑의 편지쓰기'를 공모했습니다.  
임직원들의 관심으로 많은 자녀들이 참여했고  
그 중에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 3점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작들은 사보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우수상으로 뽑힌 창원공장 오계식 주임 자녀 오수현과 장려상을 수상한 안산공장 김인구 사원 자녀인 김동우의 손편지를 함께 하겠습니다.



###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우수상 서울사무소 이선종 매니저(중부지사 해외영업) 자녀 이찬준
- 우수상 안산공장 김명수 사원(엔진부품 세그먼트) 자녀 김소연
- 우수상 창원공장 오계식 주임(대형볼베어링세그먼트)자녀 오수현
- 장려상 안산공장 김인구 사원(벨트&체인) 자녀 김동우
- 장려상 테크놀로지 이형건 과장(BU 새시&액세서리/액츄에이터 엔지니어링) 자녀 이성경
- 장려상 안산공장 왕희성 과장(Customer Service) 자녀 왕루비

창원공장 오계식 주임 자녀 오수현

우수상

### 사랑하는 오수현 아버지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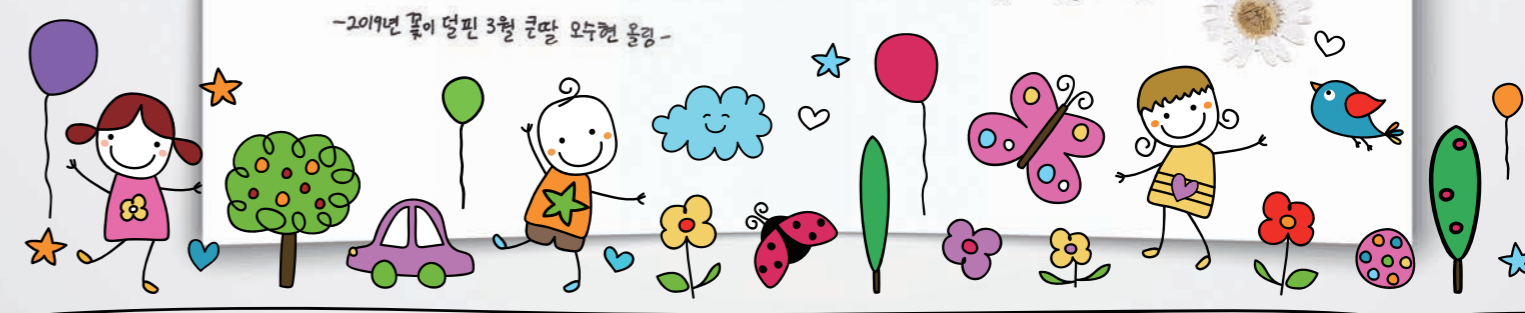
세상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세상에 단 한분이신 오수현 아빠!  
아빠는 제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 주셨고 나의 아버지요, 아주 소중한 사랑이에요.

아빠가 안 계셨다면 저는 존재조차 할 수 없을만큼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아빠를 생각하면 늘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이 감사한 마음을 감히 어떤 방법으로 갚아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네요. 아빠의 딸로 태어난 제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있고 우리 하나 부족할것없는 나의 아빠! 제게는 과분할 정도로 멋진 아버지예요!  
저도 이번생은 처음이라 딸로서의 역할로 어디서부터 뭘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아빠 또한 이번생은 처음이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이 정말로 행복해요.  
가족들 모두 각자의 일이 있지만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서,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한 가족들을 위해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가 제 길을 응원해 주셔서 전한 감동을 받았어요 사려깊은 마음으로 저를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각자 너무 바빠서 얼굴도 제대로 못보지만 자고있는 제 방에 와서 이불 덮어주시고 아침밥도 차려주시고 공부할때 간식도 가져다 주시고 방음도 잡아주시고. 사소한 배려에 아빠로부터 넘쳐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더 애교많은 딸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 표현도 많이하고 애교도 많이 부렸을거 같아요 이번 부분에서는 제가 고맙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네요. 표현은 중뚝해도 마음속에서는 아빠는 저의 디딤돌과 버팀목이라는 생각이 굳게 다잡하고 있어요. 제가 후텁지근할 때 잠들고있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초등학교때 전교리장 선거에서 떨어졌을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제게도 큰 용기가 필요했던 도전이었고 결과가 두따따 주지 못했을 때 제 자신이 사랑들에게 완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이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때 아빠가 저를 포옹 안아 주셨을 때 '내가 기대하고 있는 사랑이 있구나.', '내가 충분히 기대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아빠를 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네요. 아빠 덕분에 힘든 곤경속에서 더 빨리 나올수 있었던것 같아요 밖으로도 많이 의지하고 싶어요. 저와 동생의 아버지요, 우리가족의 가장으로, 많이 힘써 주시고 큰 짐 지고 계시는 우리아빠이 아빠가 계시기에 남부럽지 않게 먹고 풍나게! 잘 자랄수 있었고 잘 자라고 있어요. 아빠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낫지게 자라서 아빠의 버팀목과 디딤돌의 역할이 되어 배로 보답하는 멋진 딸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세요. 늘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고 아빠를 생각하면서 꿈처럼 꿈처럼 강한 딸이 되어가고 있어요. 꼭 좋은 사랑이 되어 자랑할 수 있는 수현이가 되겠습니다. 저의 아버지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일로도 대신하지 못할, 내가 평생 아버지라고 부를 소중한남강 오계식님 정말 사랑합니다♡



추운 겨울에 손이 시린 나를위해  
아빠의 큰 손으로 작은 내손을 감싸면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수가 없다♡

-2019년 꽃이 덜핀 3월 끝날 오수현 올림-



안산공장  
김인구 사원 자녀  
김동우

장려상

I'm happy

Kim Dongwoo



아빠께

아빠님 안녕하세요 김동우예요

제가 이편지를 쓰는 이유는 아빠께 매번 감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빠.. 매우 감사해요.

우선 먼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매번우리 나칠까봐 쟁겨주시고 또 위험한 물건을 쓸때면  
아빠께서 대신 해주잖아요. 회식갔다 오시면 힘들 피곤하  
실텐데 우리삼남대(밤)챙겨 주시고 (빨래) 하시고 (설거지) 까지  
이렇게 보면 아바에 휴식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저도 중학  
생이니까 아바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죄송한점도 많죠..!

막상 도와준다 했는데 귀찮아서, 종려서 안한다고 하고...  
매날 말로만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도와드릴게요!  
정말 노력할게요. 저는 듣직한 아바가 있어서 행복해요!  
~동우용담~

LOVE

Kim In Gu



### 선상파티의 오찬

<선상파티의 오찬>은 르누아르가 인상주의 시기에 그린 마지막 작품이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걸작으로, 장소는 프랑스 샤투에 있는 푸르네즈 식당 테라스이다. 눈빛, 몸짓, 표정 등 각각의 캐릭터가 섬세하게 살아있어, 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지만, 인물들은 지인들과 함께 와인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어쩌면 일상에서 한 발만 떼어도 우리는 조금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는 건 아닐지... 떠나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떠남'을 손쉽게 계획하는 것도 삶의 지혜가 아닐까.



르누아르에 유화 | 1881년 | 130 x 172.7cm | 필립스 컬렉션 위싱턴 DC



# 모터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 포뮬러 E

**포뮬러 E 소개**  
 '포뮬러 E'(Formula E)가 급성장하고 있다. 포뮬러 E는 순수 전기 레이싱카로 접전을 펼치는 친환경 모터스포츠 대회다. 자동차 업체들이 앞다퉀 포뮬러 E에 참가하는 이유는 경주대회를 통해 전기차 관련 고도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 우승 챔피언, '세플러팀'과 포뮬러 E에 대해 낱알히 살펴보자.

## 포뮬러 E의 진화

**2014 / 2015** 포뮬러 E의 시즌 1에는 모든 팀이 규격 차량(specification car)으로 경쟁을 펼쳤다. 우선 모든 참가 팀은 같은 차체와 배터리를 사용해야 했다. 전기차 특성상 공기역학과 배터리 성능이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전력 사용 효율성, 브레이크 성능, 냉각기술 등을 겨루기 위함이다. 베이징에서 개최된 첫 번째 레이스에서는 루카스 디 그라시(Lucas di Grassi)가 우승하였다. 그리고 다섯 번 더 시상대에 오른 끝에 그는 전체 랭킹 3위를 달성하였으며 다니엘 압트(Daniel Abt)는 전체 랭킹 11위를 달성하였다.



스파크-르노 SRT O1E

**2015 / 2016** 포뮬러 E 시리즈는 머신 개발과 관련된 기술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때부터 세플러는 새로운 레이스 카의 파워트레인에 대한 노하우를 쌓았다. 루카스 디 그라시는 2015/2016 시즌 레이스에서 3번의 우승을 거두었으나 최종 레이스에서 2점 차이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다니엘 압트는 베를린에서 2위를 거두며 지금까지 중 최고의 성적을 달성하였다.



ABT 세플러 FE02

**2016 / 2017** 순위표의 최상단에서 타이틀 방어자인 세바스티앙 부에미(Sébastien Buemi)와 루카스 디 그라시(Lucas di Grassi)가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시즌 중반에는 부에미가 확실한 챔피언이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디 그라시가 반격을 가하였으며 마지막에 타이틀을 거머쥐며 왕위를 탈환하였다.

**2017 / 2018** 시즌 초반에는 좋지 않은 성적으로 출발하였지만 Audi Sport ABT Schaeffler는 곧 최고의 기량을 되찾았다. 여덟 번의 연속적인 레이스에서 팀의 드라이버 중 한 명 이상이 시상대에 섰다. 그리고 시즌 마지막에 팀은 챔피언십 우승을 달성하였다. 루카스 디 그라시는 전체 2위로 시즌을 마감하였으며 다니엘 압트는 5위를 차지하였다.



아우디 e-tron FE04

## 포뮬러 E의 개척자

2014년에 포뮬러 E가 시작된 이래로 세플러는 이 자동차 레이싱에서 가장 유명하고 성공적인 플레이어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새로운 기술(전체적인 차량 설계부터 파워트레인과 과감하게 개조된 배터리 시스템까지)과 새로운 팀, 드라이버, 레이스 트랙을 통해 포뮬러 E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세플러는 성공 스토리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한다. 시즌 5의 경주 일정에 따르면 5개의 대륙에서 13번의 레이스가 개최될 것이다.

5년 전에 포뮬러 E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시작한 CTO인 피터 구츠머(Peter Gutzmer)는 "세플러에게 Formula E는 미래를 개척하는 기술과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에 대한 아이디어의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뛰어난 전문성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무대였다"며, "포뮬러 E가 시작된 이래로 이 시리즈는 모터 스포츠의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핫스팟으로 거듭나면서 전 세계의 팬들과 미디어를 전율시켰으며, 수많은 제조업체와 기업들이 앞다투어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 환경을 제공하였다."

전기차를 사용하여 경주를 펼치는 올-일렉트릭 레이싱(all-electric racing) 시리즈의 시즌 4에서 Audi e-tron FE04는 가장 효율적인 레이싱 카로서의 성능을 입증하였다. 이 차량을 계승한 2018/19 시즌의 Audi e-tron FE05은 이러한 성공 모델의 진화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Audi e-tron FE05의 핵심 부속인 파워트레인이 크게 향상되었다. 아우디(Audi)와 아우디의 기술 파트너인 세플러(Schaeffler)는 공동으로 Audi Schaeffler MGU 03이라는 이름의 모터-제네레이터 유닛을 개발하였다. 엔지니어들이 가장 집중한 부분은 패키지를 이전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에너지 효율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성과로서 모든 파워트레인 부속의 95%가 새롭게 교체되었으며, 엔지니어들의 노고를 통하여 파워트레인의 무게를 10%나 감소시킬 수 있었다.

현재 다니엘 압트와 루카스 디 그라시는 새로 개발된 Audi e-tron FE05에 탑승하여 Formula E에서 경주를 펼치고 있다.



## 팀워크

다니엘 압트와 루카스 디 그라시는 포뮬러 E 레이싱의 역사에서 모든 경주에 함께 참여한 유일한 레이싱 드라이버 페어이다.



11번

### 루카스 디 그라시

생년월일	1984년 8월 11일	2007 GP2 시리즈 2위,
출생지	브라질 상파울루	포뮬러 1 테스트 드라이버
거주지	모나코	2014 24시간 르망 레이스 2위,
키	1.80 m	WEC 4위
체중	75 kg	2015 포뮬러 E 3위
페이스북	lucasdigrassi	2016 포뮬러 E 2위
트위터	@LucasDiGrassi	2017 포뮬러 E 1위
홈페이지	LucasDiGrassi.com.br	2018 포뮬러 E 2위
유튜브	LucasDiGrassi	2019 포뮬러 E 1위
인스타그램	lucasdigras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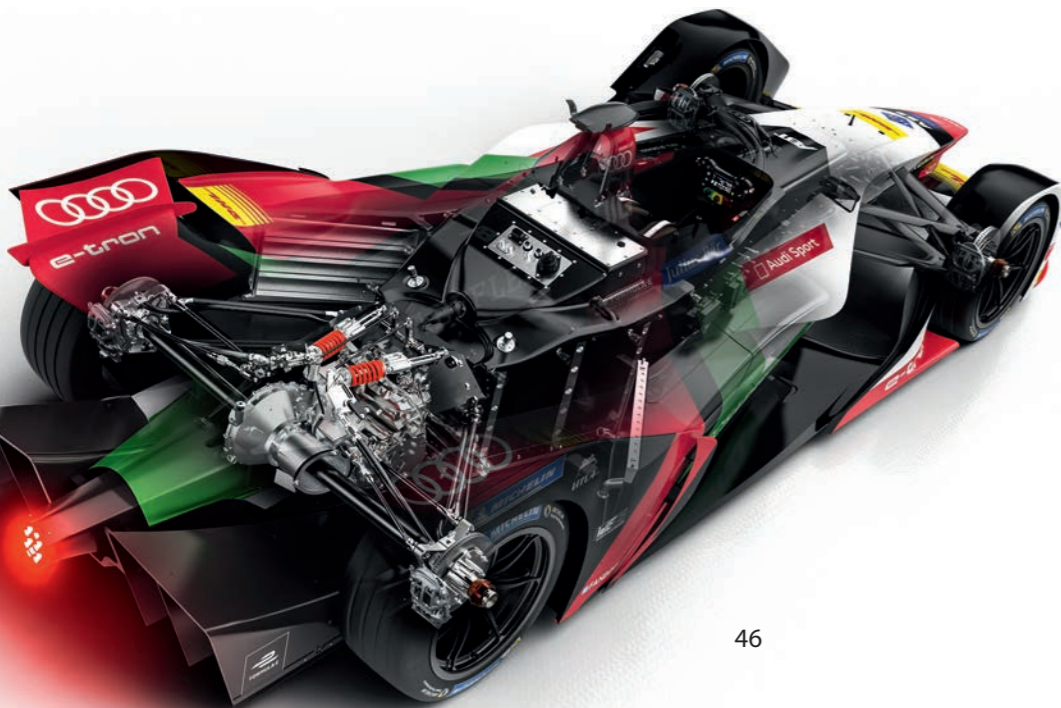
66번

### 다니엘 압트

생년월일	1992년 12월 3일	2009 ADAC 포뮬러 마스터스 1위
출생지	독일 캄프텐	2012 GP3 시리즈 2위
거주지	독일 캄프텐/윈헨	2015 르망 24 시간 레이스
키	1.79 m	클래스 내 1위
체중	72 kg	2016 포뮬러 E 7위
페이스북	Abtdaniel	2017 포뮬러 E 8위
트위터	@Daniel_Abt	2018 포뮬러 E 5위
홈페이지	danielabt.de	2019 포뮬러 E 6위
유튜브	AbtDaniel	
인스타그램	daniel_abt	

### Audi e-tron FE05

제로백 (0-100 km/h)	전장 5,200 mm
약 2.8 초	전폭 1,800 mm
최고 속도 240 km/h	전고 1,250 mm
예선 출력 250 kW	휠베이스 3,100 mm
본선 출력 200 kW	최소 중량 900 kg (드라이버 포함)
	파워트레인 리어-휠 드라이브, 모터-제네레이터, Audi Schaeffler MGU03, 1-speed 트랜스미션
	차체 공기역학, FIA 충돌 기준, 안전 기준 및 레이스 카 규격을 준수하는 Spark 카본 바디
	배터리 McLaren Applied Technologies 사의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 52 kWh, 충전 시간: 약 45 분, 중량: 약 385 kg(wet)
	브레이크 유압식 듀얼-서킷 브레이크 시스템, 전자식으로 제어되는 제동력 분배, 탄소섬유 브레이크 디스크, 뒤차축의 "brake by wire" 제동 방식



## 파트너



### 아우디

레이싱 후원 차량 제조업체로서 1980년대부터 모터스포츠 계에서 활약 +++ 랠리, 스포츠카, 투어링카 레이싱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 +++ 포뮬러 E의 팀에게 자사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 +++ 2016/2017 시즌에 세플러 및 ABT와 파트너십을 강화 +++ 2017/2018 시즌부터 레이싱 후원 제조업체이자 출전자로 활약

### 포뮬러 E

팀 챔피언 1 회

### WEC

세계 챔피언 2 회  
제조업체 세계 챔피언 2 회  
르망 24 시간 레이스 우승 13 회

### DMT/Super Touring Car 대회

드라이버 챔피언 (DTM) 10 회  
제조업체 챔피언 (DTM) 4 회  
드라이버 챔피언 (STW) 12 회  
제조업체 챔피언 (STW) 8 회

### 랠리

드라이버 세계 챔피언 2 회  
제조업체 세계 챔피언 2 회

### 포뮬러 E

드라이버 챔피언 1 회  
팀 챔피언 1 회

### DTM

드라이버 챔피언 5 회  
팀 챔피언 4 회

### ADAC GT Masters

드라이버 챔피언 5 회  
팀 챔피언 1 회



### ABT

1896 년도에 대장간으로서 설립 +++ Bavarian 가족 소유 기업 +++ 폭스바겐 그룹의 차량에 대한 튜너로서 활동 +++ 1990 년대부터 모터스포츠 업계에서 확고한 기반을 다짐 +++ 시즌 1 부터 포뮬러 E 레이스 팀으로 참여 +++ 드라이버인 다니엘 압트는 CEO인 한스 위르겐 애브트의 아들임.

## 성공 스토리

아무도 포뮬러 E가 실제로 성공할 것으로 믿지 않았을 때인 2014 년에 전기 자동차의 두 선구자인 ABT와 Schaeffler 는 팀을 결성하고 이 모험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네 번의 시즌에서 모터스포츠의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갔다.



2014/2015 시즌: 모험의 시작 ● 포뮬러 E의 첫 번째 시즌에 세플러와 ABT는 루카스 디 그라시와 다니엘 압트와 함께 유일한 독일 팀을 결성하였다.



2015/2016 시즌: 세플러 기술의 적용 ● 세플러는 ABT와 함께 새로운 ABT Schaeffler FE01 레이스 카의 파워트레인을 개발하였다.



2016/2017 시즌: 챔피언! ● 모든 측면에서 향상된 성능을 자랑하는 ABT Schaeffler FE02에 탑승한 루카스 디 그라시가 챔피언이 되었다.



2017/2018 시즌: 최고의 팀 ● 아우디는 레이싱 후원 제조업체로서 포뮬러 E 시리즈에 참여하였으며, 세플러는 여전히 팀의 독점적인 기술 파트너로서 활약하였다. 아우디 Sport ABT Schaeffler는 챔피언이 되었다.



## 혁신의 동력인 E-모빌리티

세플러는 '미래를 위한 이동수단'을 만들기 위하여 최근의 빠른 추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품질, 기술, 그리고 몇몇 놀라운 혁신은 성공의 핵심이다.

### 세플러와 관련된 사실

<b>92,500</b>	전 세계 직원의 수
<b>142억</b>	2018년 매출액 (단위 유로)
<b>2,400</b>	2018년에 신청한 특허의 개수
<b>26,000</b>	출원한 특허와 보유한 특허의 개수
<b>170</b>	전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의 세플러 지사 개수
<b>75</b>	전 세계 공장의 개수
<b>60</b>	전 세계의 차량에서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세플러의 부품 수
<b>20</b>	전 세계의 연구 개발 센터 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Industry 4.0(소위 산업 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 팩토리)의 추세에 따라 세플러는 전기 차량을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요 혁신 동력으로 간주하며, 'E-Mobility' 비즈니스 유닛을 신설하여 이 분야의 모든 활동을 통합하였다. 2020년까지 세플러는 총 5억 유로 이상을 전기차의 연구, 개발, 생산 활동에 투자할 것이다. 세플러는 오래 전부터 양산 체제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차축(e-axle)이나 하이브리드 모듈과 같은 부품과 시스템 솔루션을 제조하였다.

세플러에게 포뮬러 E는 전기자동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상적인 시험장이다. 그리고 포뮬러 E는 전기차 개발을 위하여 전세계에서 활동 중인 세플러 기술 그룹이 추구하는 기본 전략인 "미래를 위한 이동수단"이라는 목표에 적합한 활동 무대이기도 하다.

세플러는 Schaeffler 4ePerformance 컨셉트 카를 제작함으로써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e-모빌리티 자동차 홍보대사를 갖게 되었다. 이 프로토타입 차량은 레이싱 카의 기술을 양산을 위한 파워트레인 개념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모범 사례를 보여준다.

## ABT 세플러팀 2019년 FE 우승



'아우디 스포트 압트 세플러(Audi Sport ABT Schaeffler)' 소속 대표 드라이버 루카스 디 그라시(Lucas di Grassi) 선수가 지난 5월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포뮬러 E 10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라운드에서 디 그라시 선수는 '패스티스트 랩(서킷의 1랩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주파한 기록)'을 달성하는 등 최상의 레이싱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특히, 이번 우승은 세플러에게 40번째 포디움과 시즌 팀 랭킹 2위를 선사했으며, 이는 홈그라운드인 독일에서의 2년 연속 승리다.

## 2020년 전기차 레이스 '포뮬러E' 한국 개최 확정



기존 F1과 달리, FE는 자동차 배출가스 제로를 목표로 오직 전기만을 이용한다. 엔진으로 인한 소음도 없을뿐더러 환경공해가 없어 도심 속에서도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비교적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관람객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가격대도 F1보다 저렴하고, 공짜로 경주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어 누구든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

202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포뮬러 E 챔피언십'이 개최되며, 서울 '광화문'이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다.

## 세플러코리아 출범 12주년



지난 6월 3일, 세플러코리아는 2006년 세플러 그룹의 일원인 세플러코리아로 출범한 지 12주년을 맞았다.(1953년 설립된 신한베어링공업을 기준으로는 창립 66주년)

창립기념식에서는 10·20·30·40년 근속한 장기근속자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직원들에게 모범상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창립기념식에서는 총 109명이 근속상을 수상했다. 장기근속상 수상자에게는 표창 및 부부 동반 해외여행 등의 부상이 함께 수여됐다.



## 세플러 코리아 2019 장기근속상 수상 명단

### 서울사무소

- 박재완 회계
- 김덕영 감사
- 유근성 자동차 애프터마켓
- 윤광원 물류센터
- 임용범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
- 안호민 Purchasing Industrial
- 정은선 중부지사 직납영업



### 안산공장

- 김선시 품질보증 안산
- 김현성 엔진부품 세그먼트
- 허용우 벨트&체인 드라이브 시스템 BU 엔지니어링
- 김홍진 공정기술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 신운섭 엔진 시스템 연구소
- 김경신 HR 안산



### 안성물류

- 황장호 안성물류



### 전주공장

- 모철수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 김상진 휠베어링 세그먼트
- 이규선 Masterplanning JJ
- 김태영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 양희완 HR 전주
- 강성만 설비보전 전주
- 김성욱 설비보전 전주
- 김충식 볼베어링 세그먼트
- 이승우 설비보전 전주
- 김용안 설비보전 전주
- 이현기 공장구매 전주



- 이광수 볼베어링 세그먼트
- 유종선 볼베어링 세그먼트
- 김택수 볼베어링 세그먼트
- 최승범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전주
- 김철정 볼베어링 세그먼트
- 서승현 볼베어링 세그먼트
- 송윤섭 휠베어링 세그먼트
- 배택곤 치공구서비스 전주
- 강문관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 임근창 볼베어링 세그먼트
- 김중우 설비보전 전주
- 김정곤 공장구매 전주
- 박재영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 주정식 볼베어링 세그먼트
- 노현철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 조장현 볼베어링 세그먼트
- 진용진 볼베어링 세그먼트
- 신맹호 휠베어링 세그먼트
- 이주봉 휠베어링 세그먼트
- 노영숙 볼베어링 세그먼트
- 김재봉 설비보전 전주
- 온승현 설비보전 전주
- 권동우 볼베어링 세그먼트
- 안귀운 치공구서비스 전주
- 김명섭 휠베어링 세그먼트
- 국현호 볼베어링 세그먼트
- 박진욱 전주물류
- 이영님 공정기술 전주
- 최명석 사업관리 전주공장

- 박원식 선삭 세그먼트
- 김본기 설비보전 창원
- 김기영 설비보전 창원 테이퍼베어링 MU
- 나형주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 주원돈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 한병화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 박정호 품질보증 창원
- 윤창섭 선삭 세그먼트
- 백승택 설비보전 창원 베어링부품 MU
- 김동수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 강봉희 공장구매 창원
- 김은철 단조 세그먼트
- 강희창 품질보증 볼베어링 MU
- 이명규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 김철호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 오유찬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 김시근 대형볼베어링 세그먼트
- 박노석 선삭 세그먼트
- 이병철 창원물류
- 김진호 창원물류
- 송성호 창원물류
- 송근우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 박동현 H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 김영기 선삭 세그먼트
- 조영덕 대형볼베어링 세그먼트
- 김동원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 최용찬 H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 강재중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 박현민 품질보증 테이퍼베어링 MU
- 한창석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 김쌍규 선삭 세그먼트
- 윤원석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 최치영 톨센터
- 정영준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 송왕규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 테크놀로지

- 황태봉 톨센터
- 김기성 설비 조립
- 윤형석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국내 엔지니어링 & PM
- 이규석 전기 설계
- 한진우 R&D 서비스
- 이대경 BU 휠 모듈 엔지니어링
- 김강석 해석기술



## 제7기 세플러코리아 대학생봉사단 에버그린 활동 시작

- 올 8월까지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수행해 -

지난 5월 4일 세플러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EVERGREEN)'이 7기 발대식을 가졌다. 지난 3월부터 한 달간의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된 16명의 대학생은 19.6의 경쟁률을 뚫고 앞으로 국내외를 누비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3년 1기로 시작해 올해 7번째를 맞는 에버그린 봉사단은 그동안 벽화 그리기, 농촌 일손 돕기, 장애인 체육활동, 연탄 나눔 등을 통해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를 지원해왔다. 특히 지난 6기부터는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항목이 추가돼 베트남 보육원 봉사를 해오고 있다.

에버그린 7기 역시 국내외를 아우르며 세플러코리아의 도전과 상생의 가치를 함께 실천한다. 실천하는 NGO, <함께하는 사랑밭>의 가이드에 따라 7기 활동이 올 8월까지 진행되며, 환아 대상 봉사활동 및 초등학교 벽화 그리기, 베트남 보육원 방문 봉사까지 국내 4회 및 해외 1회의 활동 주제가 준비돼 있다. 에버그린 7기 활동비는 전액 무료로, 수료증 수여, 단체복 지급을 비롯해 역량 강화 교육과 직무 멘토링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또한 활동 우수자에게는 표창이 수여되며, 차후 세플러코리아 입사 지원 시 우대 혜택도 있어 봉사자들의 의욕도 남다르다.

7기 활동 운영을 맡은 <함께하는 사랑밭>은 '기업과 연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학생 봉사단은 다채로운 내용의 봉사를 기획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앞으로도 세플러코리아의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이 뜻 깊은 전통으로 남을 수 있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제7기 세플러코리아 대학생봉사단 에버그린, 베트남 고아원에서 봉사활동 펼쳐...

- 호치민 지역 고아원 대상 미술, 과학, 음악, 체육, 위생, 한국어, 성교육 등 7가지 다양한 테마로 기획 -



세플러코리아의 대학생봉사단 에버그린(EVERGREEN)이 2019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올해 7기를 맞아 결성된 단원들은 세플러코리아 자체 심사에 따라 리더십, 기획, 홍보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기수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국내외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를 도운 세플러코리아 에버그린은 올해에도 국내외 해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제7기 세플러코리아 대학생봉사단 에버그린은 '에버그린을 이야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세플러코리아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세플러코리아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을 중점 활동으로 삼았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은 '미술, 과학, 음악, 체육, 위생, 한국어, 성교육'이라는 7가지 교육 주제를 가지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봉사단 자체적으로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

특히 고아원 아이들의 연령대가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각 연령대 별로 3개 반을 구성하여 연령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반별로 각각 준비했으며 성교육의 경우에는 남녀를 나누어 맞춤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의 경우, 봉사단 내 디자인 및 미술 전공자들을 주축으로 담당자가 구성되었으며 베트남 고아원과 사전에 연락하여 어느 곳에 어떤 벽화를 그릴지 소통하는 과정을 거친 후 현지에서 봉사단원들과 함께 분담하여 벽화를 완성했다.

또한 세플러코리아는 봉사단이 파견되는 고아원에 아이들의 부족한 자리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새로운 기숙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자금을 지원했으며 베트남으로 파견되기 전 국내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단원들이 손수 꾸미고 제작한 책가방과 티셔츠도 고아원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 전주공장

### '밝은 모습 담기' 제4회 사진 공모전



지난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전주공장에서 사진 공모전이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공장 내 아름다운 모습을 배경으로 한 조와 TL 별로 '밝은 모습'이라는 주제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됐다. 심사는 구내식당에 공모작을 전시하고, 전 사원이 선호하는 사진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4개 팀을 선정했다. 최우상은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DTB 3팀이 뽑혔고, 부상으로는 상금 오십만 원과 수상작을 담은 대형 액자가 전달됐다. 우수상은 설비보전에 전기보전, 변전실조가 수상했으며, 장려상은 설비보전에 기계보전조와 품질보증의 볼베어링/테이퍼롤러 베어링 검사조가 가져갔다.

## 안산공장

### 남한산성 노사 단합 산행



지난 4월 22일 세플러코리아 안산공장 임직원은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에서 노사 단합 산행을 가졌다. 남한산성은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된 주장성으로, 군수 물자를 저장하는 특수 창고를 설치한 성이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외성과 응성을 갖춘 전형적인 산성이면서, 산성의 변화 과정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직원들은 산성종로 로타리 → 북문 → 서문 → 수어장대 → 남문 코스로 산을 올랐다. 가이드를 동행해 남한산성의 역사와 그 의미를 되새긴 이번 산행은 건강도 챙기고 화합도 다졌던 일석삼조의 시간이었다.

## 테크놀로지

### XingCheng Steel과 기술 교류회



지난 5월 30일 세플러 그룹의 주요 원재 협력사인 중국의 XingCheng Steel 그룹의 CTO 겸 총괄 엔지니어인 Mr. Xu, Xiaohong(许晓红)을 비롯한 총 9명의 대표단이 세플러코리아 창원공장과 연구소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베어링 생산 공정 견학과 기술 교류회를 가졌다. 2000년 초반 세플러 그룹의 공급사 인증 후 처음 마련된 이번 시간은 대표적 휠 베어링강인 C56E2재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강종 Modification이 양사 간 주요 관심 항목으로 논의됐다. 향후 세플러 그룹 차원에서 개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고, 금년 하반기 중국 XingCheng Steel의 본사에서 세플러코리아 및 세플러China가 함께하는 하반기 기술 교류회가 예정돼 있다.

## 미리 만나는 <세플러+원> 가을호 이야기

안녕하세요. 사보 편집실입니다.  
10월에 만나게 될 <세플러+원> 가을호 주제는 '보다'입니다.  
봄호부터 테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가을호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누구와 어디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볼 것이 많은 계절, 가을.  
당신과 함께 가을을 보는 다양한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 Mail Box

세플러코리아 사보 <세플러+원> 여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세플러+원>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다양한 의견과 소감을 보내주세요.  
사보에 적극 반영하고,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 엽서 보내는 방법
1. Mail Box 사진을 찍어서 응모하시는 분의 소속(가족인 경우, 우리 회사 임직원의 소속)과 연락처를 minyje@schaeffler.com(커뮤니케이션&브랜딩 민유정 과장 앞)으로 보내주세요.
  2. 큐알코드를 찍으면 메일이 나옵니다. 메일에 적어 보내주세요.

● 여름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칼럼과 아쉬움이 남는 칼럼은 무엇인가요?

● 참여 신청란 <테마 즐기기> · <팀과 함께> · <식사를 합시다> · <덕후열전>은 세플러코리아 사우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참여하고 싶은 코너와 이유를 적어주세요!

### 독자 퀴즈

뇌가 섹시한 남녀들이 푸는  
((( 뇌섹남녀문제 )))

Q. 다음 식에 하나의 선을 그어 참이 되도록 만들어라.  
(단, 등호를 바꿀 수는 없다.)

$$19 - 18 = 18$$

### 봄호 정답

FIVE PLUS SIX PLUS SEVEN

$$IV + IX + V = 18$$

(4) (9) (5)

### 엽서 당첨자

- 이현지(사업관리 전주공장), 최정아(세무 배병렬 부장 가족)
- 정경옥(엔진부품 세그먼트), 박지환(프로토타입 센터)
- 유갑수(설비보전 안산), 김선아(전주물류)
- 전용식(벨트&체인 드라이브 시스템 BU 엔지니어링)